

마 음

어린이들 모두가 찬양, 기도, 공부 등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처럼 선한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처치 리포트’ 이스라엘 성회 놀라운 성과

이스라엘 히브리어 주간지 ‘콜 하이르’와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50대 교회 선정기관 ‘처치 리포트’, 이재록 목사의 2009 이스라엘 성회를 ‘놀라운 권능의 사역’이라고 보도하다.

검색창에 ‘만민중앙교회’를 쳐보세요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도들이 손쉽게 활용하여 신앙생활을 더 단단하게 하는 법. 당회장님 설교 다시 듣기에서 간증을 읽고 올리는 법까지.

“난치병 치유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열혈 힌두교도가 만민교회 성도가 된 후 난소 종양 치유의 역사를 체험한 이야기와 당회장님 기도로 난치병 딸이 치유받은 성도의 간증.

# 만민뉴스

## MANMIN NEWS

제402호 2009년 10월 25일 (주간)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만민 성도들의 용기 있고 따뜻한 선행

금천 경찰서 문성지구대 소속 장명섭 성도는 올해 3월 22일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그를 우리 교회에 전도한 김수 집사는 ‘매우 성실한 성도’라고 말한다. 장명섭 성도는 등록 이후 바쁜 경찰 업무 중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심이 깊고 가정에 충실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 신앙심이 깊고 가정생활에 충실한 만민 성도들이 곳곳에서 선행을 베풀어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까지 듣고 있다.



KBS 보도/ 지난 10월 8일 KBS 오전 9시 30분 뉴스에서 ‘불길 속에 뛰어난 경찰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장명섭 성도(오른쪽 환자복 입고 있다)의 선행을 소개하였다. 장 성도는 구조 과정에서 유독가스를 마셔 3일간 입원했다. 이때 같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구조된 할머니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7일자에 따르면 “금천 경찰서 장명섭 경사(40, 남)가 지난 10월 7일 새벽, 유독가스와 불길이 가득한 방 안에 쓰러져 있는 이모(90, 여) 할머니를 수차례 진압을 시도한 끝에 10여 분 만에 구조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장 성도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땡’ 하는 폭음과 함께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연기 속에서 신음이 나는데 할머니를 살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마음이 강하게 와서 두려움은 전혀 없었다. 그는 안전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뛰어 들어가 할머니를 무사히 구해냈다. 그는 “할머니가 무사해서 감사하다”며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 나 아닌 누구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했다.

KBS 동영상 보기(<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910/20091008/1860981.html>)

한병용 장로(64, 남)는 1996년 만민복지타운 설립 후 지금까지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가족과 같이 섬기고 있다. 그는 젊은 시절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도를 맞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우리 교회로 인도받은 뒤, 쓰레기통을 뒤져 끼니를 해결하던 자신을 교회 차량 기사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거쳐까지 마련해 준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주님 사랑을 깨닫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한 장로는 “저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과거의 저처럼 험벗고 굶주린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라고 이웃들을 위한 헌신의 뜻을 밝혔다.

한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성도도 있다. 문광식 집사(57, 남)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불굴의 믿음으로 지난 9월, 제29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역도 부문 70kg 이하급 스쿼트 1위, 데드리프트 1위, 종합 1위 해서 3관왕을 차지했다. 7년 전 망막색소변성으로 시력을 잃고 가족마저 떠나보내야 했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온전한 몸으로 회복시켜주실 것”이라며, “아직도 나와 싸움에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남들과 비교하기 보다는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갈 것”이라고 고백한다. ‘진실하게 살라’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힘이 난다는 그는 우리 교회 출석 후 보이지 않던 큰 글씨 성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시력이 나빠지지 않고 있다며 감사해했다.

이들은 평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가르침이 삶의 커다란 지침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재록 목사는 수많은 설교 가운데 “여러분은 신앙생활 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 등 온 집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강조해 왔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한병용 장로(오른쪽 두 번째)와 부인 이도순 권사



전·현직 미용사들로 구성된 우리 교회 ‘미용인선교회’가 매달 노인들을 방문해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



남을 위해 헌신하길 사모하는 성도들로 구성된 ‘만민봉사대’가 예배에 참석한 뒤 귀가하는 장애우들의 휠체어를 밀고 있다.



지난 9월 21일~25일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 제29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역도 부문 70kg 이하급 스쿼트 1위, 데드리프트 1위, 종합 1위 해서 3관왕을 차지한 문광식 집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

# 마 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5)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저는 만민의 어린이들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곳에서 영원히 즐겁게, 신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넓은 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58배나 되는 넓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러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도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득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득 품을 수 있을까요?

### 첫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동생이나 형에게 또는 친구에게 뽀족한 눈을 하거나, 열심히 공부해야 할 시간에 게임을 더 열심히 하는 어린이가 있나요? 만약 이런 어린이가 있다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려 하면,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 말씀 안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주님은 재미있는 만화 영화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보고 말씀보길 원하십니다. 또 예쁜 입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스런 말, 고운 말만 하길 바랍니다. 두 손과 발은 열심히 교회에 나와 충성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을 도와 주면서 천국에 상급 쌓기를 바라시지요. 이렇게 주님이 기

뻐하시는 것만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안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점점 쉬워집니다. ‘아, 이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하고 깨달으면 누가 사키지 않아도 스스로 기쁘게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러면 마음에 점점 더 주님이 채워지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틈타지 않습니다. 비진리의 마음을 하나둘 버려 나가며 새 예루살렘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 둘째,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는 엄마 아빠와 또는 친한 친구랑 행복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끼리는 속마음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게 이야기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과 기도를 통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날그날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행복했던 일, 잘한 일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속상했던 일이나 잘못된 일을 이야기하고 화개하면 용서해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지요. “까만 마음, 나쁜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 주세요.” 하고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리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닌 겉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민의 어린이 모두 매일 매일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마음을 가득 채워나가기 바랍니다.

### 셋째, 하나님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단에서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 하며 찬양팀을 사모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더 큰 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도 훌륭하면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어린이가 단에서는 예쁜 모습으로 생글생글 환하게 웃으며 찬양하는데 집에서는 곧잘 토라집니다. ‘엄마 아빠에게 ‘최신형 게임기 사 주세요. 새 옷 사 주세요.’ 하며 떼쓰고 불평하거나 또 찬양 연습을 할 때도 함께 연습하는 친구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의 찬양을 기뻐하실까요? 단에서 예쁜 모습으로 찬양을 한다 해도 마음의 향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안타까워 하십니다. 반면에 찬양 실력은 좀 부족해도 항상 웃는 얼굴로 함께 연습하는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가 찬양한다면 당연히 아름다운 마음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겠지요?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 공부 등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항상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처럼 항상 선한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쁨만 드리시기 바랍니다.

\* 이 말씀은 10월 18일, 아동주일학교 헌신예배 말씀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시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http://www.manmin.org))에서 ‘설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속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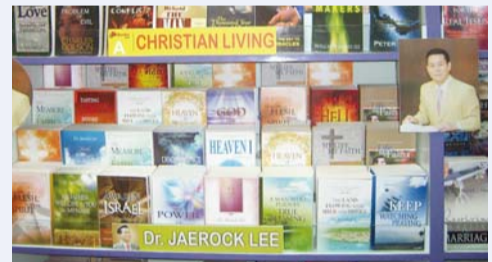
### 이스라엘 히브리어 유력 주간지 ‘콜 하이르’ 10월 18일자에 이재록 목사 권능 보도

“한국의 이스라엘 지지자, 이재록 목사는 최근 이스라엘에 내린 비에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 개신교 목사로서 최근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박사의 이스라엘을 향한 큰 사랑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비에 대한 기도 응답은 올 겨울 이스라엘에 많은 비가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주 이목사는 수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많은 비를 위해서 기도했으며 이는 전 세계 수십 개의 TV 채널로 생방송되었다. 서울에 있는 만민중앙교회에서 기도한 이목사의 기도 내용은 이스라엘에도 전달되었다. ... 그는 이스라엘의 열렬한 지지자로 또한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계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이며 많은 영적인 저서들의 저자이다. 그의 말씀을 따르는 개신교 크리스천 성도들은 수백만에 이르며 전 세계 9,000개 이상의 교회들에 퍼져 있다.”



### ‘처치 리포트’ 홈페이지 이스라엘 성회 놀라운 성과 보도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50대 교회를 선정, 발표하는 기관인 ‘처치 리포트’ 홈페이지에 ‘십자가의도 땅끝까지 전파되다’라는 제목으로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성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다. ‘처치 리포트’ 사이트는 하루 16만여 명이 방문하는 기독교계 유력 언론으로 알려져 있다.



### 인도 오웬북 직영 서점 이재록 목사 저서 상설 전시 코너 운영

인도 최대의 기독교 출판사인 오웬북 직영 서점 첸나이 지사(대표 조세 토마스)에 이재록 목사 저서 상설 전시 코너가 운영되고 있다. 『십자가의도』, 『천국』(상·하), 『지옥』 등 총 19종의 영어 및 인도어 번역도서들이 판매되어 인도 북음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 차량팀 (02)818-7391-5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5536, 5615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스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찬양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손쉽게 활용하는 방법

# “설교 듣고, 간증 보고, **클릭** 헌금 하고”



우리 교회 이향원 집사는 인터넷 선교에 뜻을 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녀가 인터넷 선교를 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15년 전, 그녀는 결핵성 뇌막염으로 사망률 95%라는 진단을 받았다. 한 달 동안 입원해 재활 치료를 받아 겨우 발을 뚝 수 있을 때 퇴원한 그녀는 4년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다리의 마비 증세가 다시 왔고 점점 심해져 응급실로 입원해야 했다. 그녀의 병이 완치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궁금했고, 힘든 몸을 이끌고 인터넷 검색을 했다. 검색을 하던 중,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치료된 사람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본 그녀는 자신도 교회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 교회에 1998년 8월 등록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로 완치된 그녀는 건강한 몸으로 12년 동안 헌신하고 있다.

김향열 집사는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늘 마음이 곤고하고 답답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를 알았고, '천국' 설교를 듣게 되었다. 영적으로 갈급했던 그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말씀에 폭 빠져들었다. 그 감동은 9개월 만에 1천 편이 넘는 설교를 듣게 했고, 이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갖게 했다.

이처럼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수많은 사람을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며, 그곳에 담겨 있는 영적 보화가 전 세계 위에 뻗어나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선교 방법이 다양화, 첨단화되고 있는 오늘날, 인터넷 홈페이지는 성도들의 신앙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성도들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안내한다.

## New 영적 자양분 제공하는 콘텐츠

우리 교회 홈페이지만의 유려한 특징이자 독보적인 장점이 있다. 이는 콘텐츠 하나하나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소식들을 전하는 인터넷 선교사 역할과 세계 각지의 현지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주일 예배, 금요철야 예배, 수요 예배 및 다나엘철야 기도회 등을 생중계하며, 네티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 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한국어 홈페이지 기준). 통합 검색창으로 한 번에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탑재했다. 이러한 정보 제공과 함께 설교 MP3 다운로드, 각종 행사시 선보인 공연과 특송 동영상 등과 교회 행정 양식 등 성도들에게 온라인 행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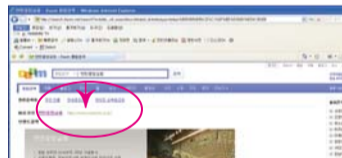
## 홈페이지로 들어가려면



1. '다음'이나 '네이버' 등으로 들어가 통합 검색창에 '만민중앙교회'를 입력하고 클릭합니다.



2. 모니터 상단에서 '바로가기 만민중앙(성결)교회'라고 해서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나옵니다.



3. 이 주소를 클릭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창이 뜨면 맨 아래 왼쪽에 있는 '한국어'를 클릭합니다.



4. 창이 뜨면 우측 상단에 설교, 찬양, 선교, 간증, 행정, 소식 중에 원하는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 홈페이지 활용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 Click 설교 듣기

: 우측 상단에 있는 '설교'를 클릭하면 다양한 설교를 듣고 볼 수 있으며 매주 설교는 업그레이드됩니다.



### Click 만민뉴스 보기

: 우측 상단에 있는 '소식'을 클릭한 뒤 '만민뉴스'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Click 출간 도서 안내

: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를 클릭해 '문서 선교'를 클릭하면 출간 도서를 볼 수 있습니다.



### Click 간증 보고 접수하기

: 우측 상단에 있는 '간증'을 클릭하면 다양한 간증을 볼 수 있으며 자신의 간증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Click 온라인 헌금

: 우측 맨 위에 '온라인 헌금'을 클릭해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 Click 새교우 등록

: 우측 맨 위에 '새교우 등록'을 클릭해 교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8240-5609 (예금주 위성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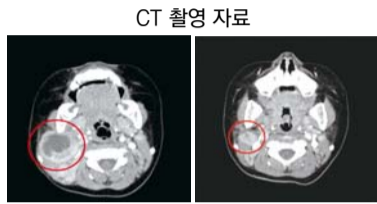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 딸의 우측 경부 농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김미경 집사 (3대 25교구, 2-10여선교회)



2006년 목 부위 임 어느 날, 파선에 염증이 생겨 5x5cm 정도의 큰 농양이 자라난 것이다. 의사는 농양이



CT 촬영 자료  
기도받기 전 5x5cm의 우측 경부 농양 보임  
기도받은 후 농양의 흔적만 보임

언제 터질지 모르니 신속히 수술해야 한다며 서둘렀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도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으면 나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바로 다음날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다. "우리 딸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몸까지 붓붕 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기도받고 돌아오니 아이는 이미 열이 내렸고, 신기하리만큼 잘 놀고 잘 먹었다. 그 뒤 당회장님께 두 차례 기도를 더 받았고, 농양의 크기는 줄어들어 7월 말에 완전히 사라졌다. 지난 9월 9일 확실한 검증 자료를 위해 진단한 결과, 농양이 깨끗이 사라져 완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10월 말에 우크라이나에서 개최되는 WCDN(세계 기독교의사 네트워크) 제6회 국제 기독교학 콘퍼런스에서 발표될 자료로 딸 윤송이의 간증이 사용된다. 딸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음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WCDN(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 세계 기독교의사 네트워크)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된 사례들을 분석하여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의학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되었다. 지금까지 한국, 인도, 필리핀, 미국, 노르웨이에서 매년 콘퍼런스를 가졌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페루 등에 지부를 두고 있다.

불현듯 8개월 된 아들과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가끔씩 동생이 얘기하던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동생에게 전화해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게" 한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첫 만남도 아이로 인한 것인데, 다시금 두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놀라게 체험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지난 5월 24일 밤, 아들(이윤혁 5세)이 거실에 있는 대리석 탁자에 부딪혀 오른쪽 눈썹 언저리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여린 살갗에 파명이 들고 퐁퐁 부어오르는 것을 보는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고 부기가 신속히 가라앉았다.

이러한 체험이 있던 후였다. 딸 윤송(3세)이에게 갑자기 39.8-40도를 웃도는 고열이 일주일 정도 지속되면서 오른쪽 볼이 부어오르고 음식을 먹지도 못했다. 동네 소아과에 가니 불거리라고 하였다. 하지만 부은 것이 점점 커지면서 귀 뒤쪽 목으로 내려왔다. 의사는 큰 병원에 가보라고 권하였다. 7월 3일, 서울아산병원에서 CT 촬영을 했다. 결과는 경부 농양이었다.



이윤송 유아(3세)는 수술하지 않고도 5x5cm의 우측 경부 농양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깨끗이 치료받았다.



"이 정도면 90% 이상 자연 파열되어 배농이 되거나 아니면 아이가 패혈증으로 진전되어 사망할 수도 있는 소견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약을 쓴다고 해도 1개월 이상을 사용해야 효과가 있을 정도인데 단순히 기도만 받고 1개월 이내로 좋아졌다니 의사로서 믿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의학박사 채윤석 -

# 열혈 힌두교도, 난소 종양을 치료받아

성기타 K.C. (네팔 만민선교센터)

저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옷 가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열혈 힌두교도로서 어릴 적부터 우상숭배가 몸에 밴 탓에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혹 기독교를 믿는 친구들이 전도하면 화를 벌컥 내며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 버릴 정도였지요. 지난 6월 어느 날, 낯선 두 사람이 옷 가게에 들어 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듣기 싫어서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말했지요.



"딱 10분만 시간을 내 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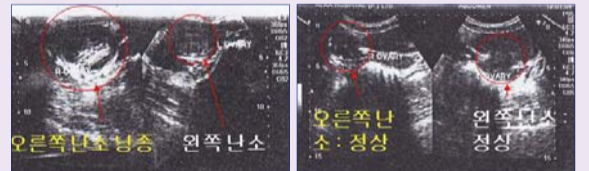
저는 그들이 돌아간 뒤 궁금한 내용이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네팔 만민선교센터에 다니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해 달라고 했지요. 얼마 후 그녀는 가게로 찾아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끌리면서 이상하리만치 더 듣고 싶었지요. 그 다음 날, 그녀가 다시 찾아왔을 때에는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천국』, 『지옥』 책자를 건네 주었습니다. 책들을 보면서 기독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긴 머리에 흰 옷을 입은 분이 저를 부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같았습니다. 그 뒤 저는 만민선교센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난소에 종양이 있어서 엄청난 복부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종양 크기가 커져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요. GCN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았습다. 또한 이해천 목사님의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해 주자 복부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8월 8일,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매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난소 안에 있던 종양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매우 놀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치료의 역사를 보고 남편 역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가족도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난소 초음파 자료



기도받기 전 오른쪽에 난소 낭종이 있는 소견  
기도받은 후 오른쪽 난소가 정상인 소견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동 275-77 ☎070-8223-491-4, 010-4575-4194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고성동 7가 104-9 ☎0533356-4717, 010-2018-8410
- 대곡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7가 104-9 ☎0533356-4717, 010-2018-8410
- 새대곡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28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1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81 ☎0623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6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0-46 ☎052291-2253, 016-9870-1537
- 안성민교회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평택민농교회 평택시 옥곡동 488 삼익2차 10동 704호 ☎031665-1405, 011-358-5973
- 천안민성교회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안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84-5 ☎041667-4721, 010-3708-1537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6-6 ☎041546-1537, 011-701-0244
- 사령민교회 충남 개동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73-11 ☎04323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랑동 96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화양동 62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포동 6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민교회 경남 진주시 사천읍 산안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8-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상리 985-1 ☎055648-9107, 010-5214-8891
- 경주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8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99-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92-3 2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대동 742-4 ☎054464-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교회 전남 여수시 문덕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민성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천장리 산63 ☎061452-7443, 010-3153-1723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사천읍 산안리 301-5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부원동 200-3 ☎063853-0675,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영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1745-0675, 010-2468-2251
- 영동자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8-26 ☎02995-9951, 011-1717-1217, 011-719-2073

- 안산자성전 강도 안산시 월곶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자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8-41 ☎032863-9857, 011-287-7369
- 김포자성전 인천시 서구 미전동 688-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57-4 ☎010-6355-1928
- 일산자성전 강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자성전 강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동 349-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자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8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자성전 강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자성전 강도 이천시 중리동 456-4 ☎031935-9103, 016-718-7458
- 의정부자성전 강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65-1 ☎031840-2806, 019-251-3149